

전기·수도세까지 아껴가며 보시행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피나투보 봉사 현장

(B1면에서 계속)

봉사팀은 크게 의료팀과 이미용팀으로 나뉘었다. 의료팀은 김진식(51·케손 그린치과)원장과 하환(52·알라방 고려한의의원)원장이 주로 맡는다. 또한 이미용팀은 윤윤선(38·마카티 아라레스토랑)사장·박숙(38·비치여행사 사장)보살이 가위를 잡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준다.

봉사팀들이 각자 맡은 봉사를 시작하자마자 20대 아줌마가 뛰어와 연실 머리를 조아리며 "마리밍 살라맛 포(Maraming salamat po-매우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24)인데 자신의 딸 다닐라(3)가 지난달 뎅기(열발라리아의 일종)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것을 하환 원장이 침을 놔 준 뒤 온 몸에 열이 가라앉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눈물을 글썽이며 무척 감사해 했다. 생활이 어려워 아파도 참고 살아야 했던 주민들에게 봉사팀의 진료 활동은 매우 값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봉사를 시작한지 3년동안 한반도 빠진 적이 없다는 김진식 원장은 "짧은 시간내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치를 뽑아주는 단순한 치료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면서 "이렇게나마 응급처치를 해주지만 아픈 것이 나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솟구치며 환희심을 느낀다"고 보람 있어 했다. 하환 원장은 한의사인 두 아들과 함께 번갈아 가며 가족이 봉사에 참가해 주위 사람들도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처음에는 '한방침'이 원지 물라 생소해 했던 마을 주민들이 간단한 침술로 아픈 곳이 낫자 이제는 한의사인 이들 세 부자만 오면 아픈 곳을 가리키며 서로 먼저 봐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침술로 치료 안 되는 중병도 많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의료 봉사자 펼쳐지는 옆에선 윤윤선, 박숙 보살이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발은 별로 인기가 없어 보였다. 줄을 서는 아이들이 손에 짝을 정도였다. 윤 보살은 "아이들이 머리 깎는 것을 싫어해 머리를 다 자르고 나면 뺨을 하나씩 주는 등 호객(?) 행위를 해서 이발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마을에는 물이 귀해 아이들이 머리를 자주 안 감기 때문에 머리마저 자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이가 생겨 건강에 좋지 않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식량과 의류 및 보시 물품을 나눠 주는 것이었다. 이날은 쌀 10가마, 옷 5박스, 땀 200봉지, 라면 5박스, 과자 2박스, 과일 2상자 등이 마을 주민들 손에 쥐어졌다. 이영실 보살(50)과 홍성길 거사(51)가 법관 스님을 도와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었다.

홍성길 거사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봉사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큰 기쁨과 행복을 한아름 받아들이고 가는 것 같다. 그 맛 때문에 힘들지만 매달 이 봉사행이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옆에서 물품을 받든 마을 이장 제임슨(65)은 "만성 질병에 속수무책이었어요.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



이미용팀의 윤윤선 보살이 어린이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아이가 겁을 내서 할머니가 잡고 있다

고, 먹을 것이 없어 산에서 나는 풀을 삶아 먹고 사는 데 가끔씩 봉사팀이 와서 너무 좋아요. 이제는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려도 봉사팀인줄 착각이 들 정도로 기다려줍니다"고 감격해 했다.

낮 12시부터 시작된 봉사는 오후 6시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끝이 났다. 반나절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팀이 이들에게 주고 가는 것은 단순히 치료와 부족한 물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자비의 정신이었다.

이영실 보살은 "이 곳 교민신도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 후원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을 비롯해 우리 봉사 단원들은 절에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아껴가며 보시 물품을 마련하지요"라며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안써 절약하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헌연일체가 돼서 긴축재정을 펼칩니다"고 말했다.

피나투보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경우는 다르지만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업가인 윈들러가 독일군 장교에게 수용소에서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뇌물을 주며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낸다는 '윈들러리스트'다. 그때 윈들러는 이렇게 혼자 속삭인다. "내가 차고 있는 이 금반지와 자동차 하나를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글·사진/필리핀 피나투보-김주일 기자

- 1.바랑가이 주민들과 함께 법관 스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이영실 보살(사진 왼쪽)이 주민들에게 쌀과 땀 등을 나눠주고 있다.
- 3.침술 봉사를 하고 있는 하환 원의사.
- 4.필리핀 경주 불국사 포교원 봉사팀의 주역들. 왼쪽부터 윤윤선·박숙·이영실 보살, 법관 스님, 홍성길 거사.

“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주지 법관 스님

“피나투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과 옷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생 및 의료 상식에 대한 교육, 글을 가르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지요.”

포교원 개원 이듬해인 2001년부터 피나투보 자원 봉사에 나선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주지 법관 스님(사진)은 당장 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교육이다.

봉사행을 펼치는 스님에겐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봉사하면서 절대 불교를 믿으라고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봉사팀은 순수하게 봉사가 좋아서 시작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김진식 원장은 불자지만 가끔씩 교회 봉사 현장에도 가지요. 최근 한국의 모 교회서 아프리카니스탄에 가 선교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봉사 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 더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빵과 옷이지 종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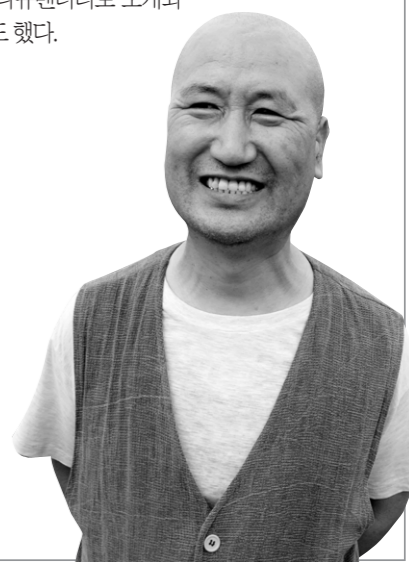
아닙니다.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며 봉사의 참 정신을 강조했다.

한편 법관 스님은 2006년 조계종 해외포교 교육, 글을 가르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지요.”

포교원 개원 이듬해인 2001년부터 피나투보 자원 봉사에 나선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주지 법관 스님(사진)은 당장 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교육이다.

봉사행을 펼치는 스님에겐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봉사하면서 절대 불교를 믿으라고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봉사팀은 순수하게 봉사가 좋아서 시작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김진식 원장은 불자지만 가끔씩 교회 봉사 현장에도 가지요. 최근 한국의 모 교회서 아프리카니스탄에 가 선교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봉사 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 더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빵과 옷이지 종교가



대한불교삼론종



좋은 환경 물려주기 대승보살 실천수계 대법회



삼 화 상: 전계아사리 - 석 해공 종정 갈마아사리 - 석 해승 부종정 교수아사리 - 석 대안 승정원장

대 회 장: 석 진봉 총무원장 철 증 사: 석 지운, 석 인봉, 석 은곡, 석 지심, 석 승봉, 석 향운, 석 초원

봉행위원장: 석 지경 총회회장 집행위원장: 석 해불 기획위원장: 석 도우

지도위원장: 석 지성 봉사위원장: 석 지향 의 식 집 전: 석 성희, 석 도일

• 일 시 : 2007년 10월 25일 12시 • 장 소 : 대전 평송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 전화 02)937-0343 / 팩스 02)937-0344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